광주여대 총장기 제27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가 오는 19일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여대 제공〉

'광주여대 총장기 제27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 19일 개막
25개 대학 220여명 참가…훈련 성과 점검·학교 간 화합의 무대

국내 대학양궁 최강을 가리는 '광주여대 총장기 제27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가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나흘간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펼쳐진다.

미래 한국 양궁을 짊어질 전국 25개 대학교 220여 명의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금메달을 놓고 겨룬다.

대회는 리커브에선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시·도별 예선 기록 합계 상위 남녀선수 1명씩이 출전하는 혼성단체전, 거리별 경기로 나뉘며, 컴파운드에선 남녀 개인전과 거리별 경기로 나뉘어 치러진다.

대회 첫날인 오는 19일에는 공식 연습 및 장비검사가 이뤄지며, 오는 20일에는 여자부 70m, 60m 경기와 남자부 90m, 70m 경기가 진행된다.

대회 둘째 날인 오는 21일에는 남녀 50m, 30m와 개인전 64강 및 혼성 단체전 16강부터 결승 경기가 열린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에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16강부터 결승 경기가 펼쳐진다.

199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는 2011년 열린 14회 대회부터 광주여대가 주관하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양궁 명문' 광주여대는 2012 런던 올림픽 기보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미선,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안산 등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며 '국가대표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광주여대 오예진(초등특수교육과 3년)이 선배 최미선과 함께 2024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동안 우수 선수를 꾸준히 배출하며 '세계 최강' 한국 양궁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 이번 대회는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대학생 선수들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학교 간 친선 도모와 선수들의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대학양궁연맹회장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은 "경쟁과 승패를 떠나 양궁과 함께 이어 온 우정과 화합이 '광주공동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더욱 환하게 피어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스완지시티 엄지성 친필 사인 유니폼 경매
광주FC, 15일 오후 12시~22일 오후 8시…수익금 유소년 발전 활용

유럽 무대 도전에 나선 광주FC의 프랜차이즈 스타 엄지성의 친필 사인 유니폼이 경매를 통해 판매된다. 〈사진〉

광주FC는 "구단 유스 출신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소속 스완지시티AFC로 이적한 엄지성의 친필 사인 유니폼을 옥션 플랫폼 '컬렉스'를 통해 판매한다"며 "엄지성이 보내온 유니폼을 구단이 아닌 팬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을 유소년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선 경매는 15일 오후 12시부터 22일 오후 8시까지 7일간 진행되며, 수익금은 전액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사용된다.

광주는 앞서 엄지성 친필사인 유니폼을 지난 주말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2층에 위치한 광주FC 팝업스토어를 통해 팬들에게 공개했다.

광주 유스 출신의 엄지성은 금호고 시절부터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한 거침 없는 플레이로 주목을 받은 '특급 유망주'였다.

많은 기대 속에 2021년 프로에 뛰어든 그는 7경기 만에 데뷔골을 장식하는 등 프로 첫해 4골 1도움을 기록했다.

2022시즌에는 28경기에 출전해 9골 1도움을 장식하면서 베스트11과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K리그2 시상식 단상에 올랐다.

지난 시즌에는 부상으로 고전했지만 28경기에 나와 5골 3도움을 올리면서 광주의 팀 최고 성적인 '3위'와 함께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기여했다. 올 시즌에는 15경기에서 2골 3도움을 올렸다.

그는 또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 지난해에는 아이슬란드와의 친선경기를 통해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고, 이 경기에서 투입 11분 만에 골도 기록했었다.

엄지성은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스완시시티의 러브콜을 받았고,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새 유니폼을 입게 됐다.

한편 지난 7월 3일 에이스의 이적을 확정한 광주는 '엄지성,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주제로 환송식을 마련해, 엄지성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탈리아 성전환 육상 선수, 패럴림픽 뛴다
페트릴로, 여자 200m 등 출전…선수들, 이의 제기 탄원서 제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시각 장애인 트랜스젠더 육상선수가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BBC는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의 성전환 육상선수인 발렌티나 페트릴로(50·사진)가 자국 국가대표로 선발돼 파리 패럴림픽 장애인 육상 여자 200m와 400m 스포츠등급 T12 경기 출전 자격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페트릴로는 BBC와 인터뷰에서 "나는 포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 모습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페트릴로가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데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

세계육상연맹과 세계장애인육상연맹의 성소수자 출전 정책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육상연맹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국제대회 여성 부문 출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장애인육상연맹은 법적으로 여성으로 인정받은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허가한다.

이미 페트릴로는 국제대회 출전 이력이 있다. 지난해 세계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페트릴로의 패럴림픽 출전에 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반대해온 이탈리아 출신 변호사 겸 육상선수 마리우차 퀼레리는 "페트릴로의 패럴림픽 출전 허가는 공정의 가치보다 포용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엔 30명 이상의 여성 선수들이 이탈리아 육상연맹과 정부에 페트릴로의 대회 출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페트릴로는 9세 때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했고, 14세 때 퇴행성 안구질환인 스타가르트병 진단을 받았다.

시각장애인이 된 페트릴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각 장애 남자 육상 선수로 활동했고, 이탈리아 국내 대회에서 11차례 우승했다.

여성과 결혼한 페트릴로는 2018년부터 아내의 지원을 받아 여성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2019년 1월부터는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

한편 스포츠 과학자인 로스 터커 교수는 BBC와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어린 시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남성적 신체를 갖게 된다"라며 "스포츠계는 선수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면 성소수자들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미 형성된 근육과 근력, 골격 모양, 골격 크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더라도 경기력의 이점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들 종합 스포츠 축제 16일 개막
인천서 제17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17개 시·도 1460명 육상·수영 등 15개 종목 레이스

전국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들의 종합 스포츠 축제 '제17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펼쳐진다.

인천 문학경기장을 포함한 13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1460여명(선수 1103명, 지도자 357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

종목은 육상·수영·축구·농구·골프·탁구·배구·역도·태권도·보체·배드민턴·롤러스케이트 등 12개 정식 종목과 핸드볼·MATP·사이클 등 3개 시범 종목, 총 15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2014 인천아시안·패러게임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잔디마당에서 치르는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종목 경기 외에도 발달장애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6개 과목(눈, 구강, 발, 청각, 유연성·근력, 영양) 검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용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은 "작년 여름 프랑스 비시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버투스 글로벌게임과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감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선수들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산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페셜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명칭 사용 허가를 받은 유일한 국제스포츠기구로,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